

문학, 역사, 지리-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 비교

이상원*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담양의 가사문학과 외부 지향성
- III. 장흥의 가사문학과 내부 지향성
- I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포용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지역성 또는 지역적 역사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을 비교·검토한 것이다.

담양의 경우 질적 측면에서 조선전기 가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가사에서는 강한 외부 지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담양의 가사가 지닌 외부 지향성은 조선 후기 가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흥의 경우에는 백광홍의 <관서별곡>을 제외하면 모든 작품이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가사는 지역 내부의 단결과 결속을 도모하는 내부 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담양의 가사가 조선전기는 물론이고 조선후기에도 강한 외부 지향성을 보이게 된 것은 담양 일대에서는 그래야 지배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담양의 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군의식은 양반의 품격을 결정하는 네 가지 조건 중 충절(忠節)과 환관(宦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장흥의 장흥위씨나 인천이씨는 동족마을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장흥 지역 향반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가사, 내부 지향성, 담양, 문학, 역사, 외부 지향성, 장흥, 지리.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론

그동안 조선시대 시가문학을 연구하는 데 중심적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전기 사대부의 강호시가를 당대의 정치사와 관련시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자연의 주인이 되어 수기적(修己的)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거나, 조선후기 여항인의 통속문학을 사회사적·경제사적 변동과 결부시켜 서울의 도시화·상업화로 인해 탄생한 도시 중간 계층의 유흥문화의 산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연구 방법은 조선시대 시가문학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거나 시가문학의 시대적 변화의 추이를 포착하는 데는 상당한 장점으로 기능해 왔으나 지역별·작가별·작품별로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꽤 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가 성취한 것은 조선 전기 사대부의 강호시가가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조선후기 여항인의 통속문학에도 18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에 구축한 거대담론에 약간의 균열을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 거대담론 지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지역문학 또는 장소성을 거론하는 연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은 김창원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가 “계급 내지 계층 중심의 단선적 문학사”였으며 “시대사 중심의 거대담론을 지향”해 왔다고 진단하면서, 이것이 “중양 중심의 획일주의를 조장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 왔”으며 “어느 하나의 문학을 대표로 하여 그것을 시대적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중앙 중심의 획일주의와 대표문학 위주의 왜곡과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문학의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¹⁾ 그리고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이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전통적인 역사주의적 관점과 최근의 지역문학적 관점은 상호 모순되는 것인가? 역사주의적 관점은 아무래도 시대사 중심의 거대담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별자들의 세세한 차이가 일정하게 무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지역문학적 관점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지역과 지역성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추상적인 이론으로 도출하는 작업에 다소 소홀할 소지가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양자는 핵심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자를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파악한 데 기인한 것이다. 실상은 양자가 상호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연구에서 역사성을 중시하는 것은 시대사 중심의 거대담론을 지향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역사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문학이 역사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역사적 현실이란 어떤 역사적 개인이 특정한 역사적 지역에서 살아가는 구체적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역문학적 관점 또한 구체적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지역성을 보기 위함이며 이때의 지역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²⁾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역사성을 중시하는 역사주의적 관점과 지역성을 중시하는 지역문학적 관점은

1)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pp.240-241.

2) 위의 논문, p.242.

서로 배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포용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지역성 또는 지역적 역사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는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을 선택하였다. 특별히 담양과 장흥이라는 두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지역이 호남지방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표1〉 전남지역 가사의 지역별 분포³⁾

구분	담양	영암	장흥	나주	보성	해남	강진	진도	장성	완도	화순
조선전기(10)	6		1		1	1	1				
조선후기(39)	12	3	8	3	2	2	3	1	3	1	1
합계(49)	18	3	9	3	3	3	4	1	3	1	1

전남지역 가사 49편 중 담양이 18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흥이 9편으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1~4편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한편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을 선택한 것은 비단 양적 비중을 고려한 때문만은 아니다. 두 지역의 가사는 지역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차이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선택의 또 다른 이유이면서 오히려 본질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3) 전남지역 가사의 총합과 지역별 분포 양상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작품 현황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p.133.'의 표를 토대로 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Ⅱ. 담양의 가사문학과 외부 지향성

담양의 가사는 총 18편이다. 이는 담양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거나 담양을 배경으로 성립된 가사를 모두 합친 것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담양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더라도 담양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작품⁴⁾을 담양의 가사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⁵⁾ 하지만 담양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담양 사람에 의해 창작된 경우에는 담양에서의 삶의 경험이 작품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담양의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이들 작품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담양의 가사 18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담양의 가사 작품

번호	작품 이름	작가	창작 연대
1	낙지가(樂志歌)	이서(李緒, 1484~?)	1520년대
2	면양정가(倂仰亭歌)	송순(宋純, 1493~1582)	1552년?
3	성산별곡(星山別曲)	정철(鄭澈, 1536~1593)	1560년?
4	관동별곡(關東別曲)	정철(鄭澈, 1536~1593)	1580년
5	사미인곡(思美人曲)	정철(鄭澈, 1536~1593)	1588년
6	속미인곡(續美人曲)	정철(鄭澈, 1536~1593)	1588년
7	축산별곡(竺山別曲)	정식(鄭湜, 1661~1731)	1727년
8	효자가(孝子歌)	정방(鄭枋, 1707~1788)?	미상
9	향음주례가(鄉飲酒禮歌)	남극엽(南極曄, 1736~1804)	1797년
10	충효가(忠孝歌)	남극엽(南極曄, 1736~1804)	1803년
11	경술가(庚戌歌)	류도관(柳道貫, 1741~1813)	1790년?
12	사미인곡(思美人曲)	류도관(柳道貫, 1741~1813)	미상

4)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철의 <관동별곡>과 정식의 <축산별곡>이 있다.

5) 고성혜, 『담양가사의 미의식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3	초당춘수곡(草堂春睡曲)	남석하(南碩夏, 1773~1853)	미상
14	사친곡(思親曲)	남석하(南碩夏, 1773~1853)	미상
15	원유가(願遊歌)	남석하(南碩夏, 1773~1853)	미상
16	백발가(白髮歌)	남석하(南碩夏, 1773~1853)	미상
17	석촌별곡(石村別曲)	정해정(鄭海鼎, 1850~1923)	1884년
18	민농가(憫農歌)	정해정(鄭海鼎, 1850~1923)	1884년

담양의 가사는 조선전기(16세기) 6편, 조선후기(18~19세기) 12편으로 17세기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시기에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놓고 보면 조선후기가 조선전기보다 2배나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1>을 참고하여 여타 지역과의 상대성을 고려하면 담양의 가사는 오히려 조선후기보다 조선전기에 더 활발하게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담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가사 창작이 없거나 1편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담양에서는 무려 6편이나 창작되어 여타 지역의 6배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⁶⁾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사 창작이 활발하지 않던 16세기에 왜 유독 담양에서만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을까?

16세기에 담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가사가 창작된 것은 당시 담양 일대가 호남 사림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남 사림과의 학맥은 논자에 따라 4계열,⁷⁾ 6계열⁸⁾ 등으로 세분하기도 하나 크게 보면 송순 계열과 서경덕 계열로 나눌 수 있다.⁹⁾ 이 중 후에 서인계로 좌정하게

6) 이에 비해 조선후기는 여타 지역 평균인 2.7편의 4.4배, 장흥(8편)의 1.5배에 그치고 있다. 이로써 담양이 가사문학의 고장답게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 골고루 많이 창작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조선전기에 창작된 담양의 가사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김굉필, 최부, 송흙, 박상 계열.

8) 김굉필, 최부, 송흙, 박상, 이항, 김안국 계열.

9)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되는 송순 계열은 광주·장성·담양·창평 등 주로 전라좌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¹⁰⁾ 대표적인 인물로 광주의 기대승, 장성의 김인후, 담양의 송순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기대승과 김인후는 도학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에 송순은 문학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담양에는 송순의 면앙정을 비롯하여 양산보의 소쇄원, 임억령의 식영정 등 누정과 원림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담양에서 상대적으로 시가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배경 하에서 창작된 담양 가사문학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외부 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작가의 서울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서(李緒, 1484~?)의 <낙지가(樂志歌)>는 유배에서 풀려났음에도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담양에 머물러 살기로 작정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자연 속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은 작품 말미의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臥龍先生 諸葛亮은
南陽 싸의 밧슬 갈며
逐薦處士 陶淵明은
北牕 아리 술을 걸너
各得其志 뜻을 즐겨
不求聞達 조흔시고
陋巷簞瓢 자바다가
安貧이나 흥여 보식.

10) 이에 비해 후에 동인계로 좌정하게 되는 서경덕 계열은 나주·화순·함평·해남 등 주로 전라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위의 책, p.29.

… (중략) …

書不盡意 圖不盡情

이 님 事業 님 알소나?

仲長統의 樂志論을

我亦私淑 ㅎ여셔라.¹¹⁾

그러나 이는 작가의 담양 은거에 지나치게 견인된 해석이다. <낙지가>의 전반적 지향은 16세기 재지사족의 강호시가에 흔히 나타나는 수기적 삶과는 꽤 거리가 있다. <낙지가>는 2음보 1구 기준으로 총 152구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1/3선인 54구에 와서야 비로소 “秋月山이 潭州로다”라고 하여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담양을 언급한다. 그 이전 1/3의 내용은 곤륜산 일맥이 이동하여 형성된 조선은 천부금성(天府金城)의 터이므로 이곳에서 만세기업(萬世基業)을 지어 보자는 것, 한양의 지세와 임금에 대한 찬양, 팔도의 명산에 대한 탄미(歎美) 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담양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에도 담양에 대한 예찬을 한참 늘어놓은 뒤에 “鷹峰 아리터를 닦고 이 님 人生 스르셔라”라고 하여 여기에 살게 되었음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76구니까 딱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보통의 가사라면 얼마 안 되는 서사로 처리되어야 할 내용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이 은거자의 삶보다는 조선의 문물을 예찬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후반부의 내용도 성주(聖主)와 양신(良臣)이 다스리는 태평성세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인(仁)을 얻어 양친(養親)하고 덕(德)을 얻어 교인(教人)하는 삶, 임금의 성덕(聖德)과 대비의 인혜(仁惠)에 대한 예찬, 주변의 사물을 접할 때마다 공자·소강·절·요순·안자·문왕·주공의 도를 떠올리는 모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

11) 『몽한영고(夢漢零稿)』. 이하 <낙지가> 인용은 이 책에 따름.

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낙지가>의 마지막 구절을 새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중장통의 <낙지론>을 사숙했다고 했는데 <낙지론>은 일반적으로 공명을 떠나 한가롭게 자연을 노니는 즐거움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나의 백부는 고상한 마음과 원대한 운치로 세상사를 멀리 벗어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부귀공명을 평소에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오직 산림에서 맑고 편안히 지내는 즐거움만 맛있는 고기처럼 좋아하시어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해도 그것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하늘이 사람에게 쉽게 주지 않는 것이 부귀공명보다 더 심하다. 옛날 중장통(仲長統)이 <낙지론(樂志論)>을 지어 한가로이 거쳐하는 즐거움에 대해 극론하기를, “제왕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말을 좋아하여 암송하였다. 그러나 공리(公理, 중장통)는 단 하루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였다.¹²⁾

김창협은 중장통이 <낙지론>을 지었으나 정작 하루도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한다. 중장통은 광생(狂生)이라 불릴 정도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이 강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낙지론>은 현재적 삶을 읊었다기보다는 소망하는 삶을 읊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실제로 그는 후에 조조(曹操)의 군사(軍師)로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김창협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낙지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이서가 중장통의 <낙지론>을 사숙했다고 한 것 역시 그가 소망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일 뿐 현재적 삶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잊고 지금의 담양 생활에 만족하고 있

12) 김창협 지음, 송기채 옮김, <백부 곡운 선생의 70세 장수를 축하한 서>, 『국역 농암집』 4, 민족문화추진회, 2004, pp.43-44.

다기보다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¹³⁾에서 지금의 담양 생활이 과거의 서울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위로하고 싶은 것이다. <낙지가>는 『몽한영고(夢漢零稿)』에 실려 전하는데 여기 ‘몽한(夢漢)’은 그가 남긴 유일한 한시¹⁴⁾에서 따온 것으로 ‘꿈에 한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서의 서울 지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송순(宋純, 1493~1582)의 <면앙정가(倅仰亭歌)>는 조선시대 누정가사의 첫 장을 연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송순에게서 누정가사¹⁵⁾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을까? 누정은 개인적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심성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연회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면앙정의 경우 창평의 정철, 광주의 고경명과 기대승, 장성의 김인후, 나주의 박순과 임제 등 인근의 문인들이 모여 시문을 짓고 연회를 즐기는 등 문학적 소통의 공간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송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문학적 소통의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림 정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면앙정가>의 경관 묘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 이서는 1507년 역모사건에 중형 찬(讞)이 연루된 것에 연좌의 죄를 받아 창평에 정속(定屬)되었고, 1510년 정속에서 해제되어 부처(付處)되었으며, 1520년 부처에서 풀렸다.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14년간 유배지에서 보낸 데다 유배 이전에 부친과 모친이 다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서의 서울 기반은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반면 담양에는 그의 외가인 홍주 송씨 일가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따라서 사면 뒤 상경하지 않고 담양에 머문 것은 은거를 위한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하겠다.

14) “斗縣雲山壯，寒窓歲月多，分明今夜夢，飛渡漢江波。”

15) 누정가사에 대해서는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참조.

无等山 혼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니 세쳐 와
 霽月峯의 되여거늘
 無邊 大野의
 모습 짐작호노라
 일곱 구미(빅) 흙(흙)머¹⁶⁾ 움쳐
 므(믄)독믄(믄)독¹⁷⁾ 버러듯
 가운데 구비논
 굵기 든 늘근 중(농)이
 선금을 그 켜야
 머리를(를) 안쳐시니¹⁸⁾
 너르바회 우히
 松竹을 해혀고
 亭子를(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千里를 가리라
 두 나리 버러는 듯
 玉泉山 龍泉山
 느린 물회
 亭子 압 너븐 들히
 兀兀히 퍼진 드지
 ... (중략) ...

16) <면양정가>를 한역한 <신변면양정장가(新翻倂仰亭長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글자로 ‘偕’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는 ‘흙썩’의 오기로 보인다.

17) <신변면양정장가>에서 이에 해당하는 글자는 ‘群’이다. 따라서 이는 ‘무덕무덕’(무더기무더기의 준말)의 오기로 보인다.

18) <신변면양정장가>에 ‘矯首’라 하였으니 ‘머리를 쳐드니’가 옳다. 필사 과정에서 옆에 있는 ‘亭子를 안쳐시니’를 잘못 보고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

너브¹⁹⁾ 길 밧기요
 기²⁰⁾ 하늘 아지(릭)
 두르고 쏘준 거슨
 모힌가 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근느 듯 넷느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이(어)즈러운 가온덕
 일흠 느 양ㅎ야
 하늘도 첫치²¹⁾ 아녀
 옷독이 셔느²²⁾ 거시
 秋月山 머리 짓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漁灯山
 湧珠山 錦城山이
 虛空의 버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문 것도 화(하)도 할샤.²³⁾

19) ‘너븐’의 오기.

20) ‘긴’의 오기.

21) ‘저치’의 오기.

22) ‘넷느’의 오기.

23) 『잡가』,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이하 <면양정가>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함. 작품은 필사본 가집에 쓰인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주석을 달았다. ‘()’는 가집의 해당 글자 옆에 덧붙여 쓴 것인데 언제 첨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면양정가>의 서두는 광주와 담양을 잇는 무등산에서 시작한다. 무등산에서 뻗어 나온 한 줄기가 동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제월봉이 되었고 이 제월봉을 포함하여 일곱 개의 봉우리가 무더기무더기 펼쳐져 있다. 그 중 가운데의 제월봉은 산세가 아래로 쪽 뻗어 내려가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올라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어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든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곳에 면양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멀리 무등산에서 정자로 가까이 이동하던 화자의 시선은 다음부터는 다시 정자 앞 물을 묘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담양의 추월산·용귀산²⁴⁾·몽선산²⁵⁾, 장성의 불대산, 광주의 어등산²⁶⁾·용진산, 나주의 금성산이다. 이것은 물론 면양정에서 바라본 조망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면양정 앞에 선 화자는 시선을 약간 왼쪽으로 향하여 광주의 동쪽에 위치한 무등산으로부터 시작해 고개를 왼쪽으로 계속 돌려 면양정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해 담양 북쪽의 추월산에서 시작해 고개를 왼쪽으로 계속 돌려 장성을 거쳐 광주의 서쪽을 지나 나주에까지 이른다.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곳 중 면양정을 생략하고 제월봉에서 추월산을 바로 이으면 무등산-제월봉-추월산-용귀산-몽성산-불대산-어등산-용진산-금성산-무등산으로 연결되는 원이 그려진다. 이 원 속에 면양정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면양정의 입지 선정은 진경환의 지적대로 안주와 초월의 욕망을 모두 충족하는 명당의 요건을 잘 갖추고

24) 『면양집』에 실려 있는 <新鰲俛仰亭長歌>에는 ‘龍龜’라 되어 있다.

25) <新鰲俛仰亭長歌>에는 ‘夢仙’이라 되어 있다. 몽선산은 현재 삼인산(三人山)으로 불리고 있다.

26) ‘灯’은 ‘燈’의 간자다. <新鰲俛仰亭長歌>에는 ‘魚登’이라 되어 있으며, 현재도 이렇게 쓰고 있다.

있다고 하겠다.²⁷⁾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이렇게 포괄하는 범위가 당대 호남 서인 계열의 주무대였던 광주·장성·담양·창평 등 전라좌도 지역과 나주²⁸⁾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면양정가>가 단순히 은거자의 풍류와 정회를 읊은 것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송순은 1550년에 진복창(陳福昌)과 이기(李芑) 등에 의하여 사론(邪論)을 편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갔다가 1551년 11월에 석방되었다. 이후 고향 담양으로 돌아온 그는 1552년, 당시 담양부사였던 오겸(吳謙, 1496~1582)의 도움을 받아 면양정을 증축하였다.²⁹⁾ 그리고 선산부사를 지내고 돌아온 1555년에서 1558년 사이에 <면양정가>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³⁰⁾ 유배 이전 송순은 대사헌과 이조참판을 역임한, 호남 사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 따라서 그의 유배와 낙향은 호남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때문에 면양정 증축과 그에 이은 일련의 시문 창작 과정은 굉장히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양정 증축과 일련의 시문 창작 과정은 송순 계열 문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 분담까지 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직에 있으면서 송순의 정치적 동지인 오겸은 면양정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였고, 인근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장기를 살려 기를 짓기도 하고 부를 짓기도 하고 <면양정삼십영>을 읊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인인 송순은 <면양정가>를 지었다. 면양정

27) 진경환, 「누정가사의 공간과 풍경」, 『우리어문연구』 제38집, 우리어문학회, 2010.

28) 나주는 당시 동인과 서인의 각축장이었다.

29) 기존 연구에서는 이 해에 송순이 선산부사로 나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연보의 오류를 그대로 믿은 잘못이다. 1552년에 송순은 담양에 있었으며 그가 선산부사로 임명된 것은 1553년 윤3월의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기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5.’ 참조.

30) 위의 논문.

증축을 둘러싼 이런 대대적인 행사는 송순과 그 주변의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義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神僊이 었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 거닐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 上의
 李太白이 사라 오다
 浩湯 情懷야
 이에서 더흐소냐?
 이 몸이 이렇굼도
 亦君恩이샀다.

따라서 작품 말미에서 지금이 바로 회황시절이요, 자신이 바로 신선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신의 호방한 삶이야말로 이태백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저 면양정 주변을 거닐면서 일어나는 개인적 흥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호남 사림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호언장담이라 하겠다. 결국 송순이 담양에 돌아와서 면양정을 증축한 것은 갓 유배에서 풀려난 자로서의 자중함을 보이기 위해 자연 속을 소용음영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마지막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그의 눈은 여전히 떠나온 세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순에게 있어 면양정은 수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호남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는 꿈과 의지를 키우는 공간이었다.

정철의 경우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으로서 <사미인곡>과 <속미인

곡>에 나타난 연군의 정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중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느끼는 초조와 불안감의 문학적 표현”³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또 <관동별곡>도 서울양반으로서의 정철의 독특한 정서가 반영된 작품이라는 것이 논의된 바가 있다.³²⁾ 다만 <성산별곡>의 경우는 식영정 주인의 은일적 기풍을 예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작품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은일적 삶에 대한 예찬은 “역설적으로 잊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강한 미련을 드러낸 것”³³⁾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왕족 출신으로 담양에 유배 와서 <낙지가>를 지었다. 송순은 담양에서 태어났으나 과거급제 후 30여 년을 서울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 잠깐 유배를 경험한 뒤 유배에서 풀려나 일시적으로 낙향한 상태에서 면양정을 증축하고 그 연장선에서 <면양정가>를 지었다. 정철은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양반으로 담양으로의 낙향이 유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배자와 동일한 정서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태어났거나 서울 중심으로 생활해온 사람들로서 이들의 작품에는 정착과 안주에 대한 욕망보다는 바깥 세계로 뛰쳐나가려는 외부 지향적 욕망이 훨씬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창작된 담양의 가사는 모두 담양의 재지사족들이 지은 것이고 벼슬 이력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가사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교의 초점을 담양 내의

31) 김창원, 『조선후기 서울인의 심상지도와 연군시가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31, 서울 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8, p.120.

32) 김창원, 『<관동별곡>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33) 이상원, 『조선전기 시가문학의 동향 2』, 『새 민족문학사강좌 01』, 창비, 2009, p.224.

전기가사에 맞추지 않고 같은 조선후기의 장흥가사에 맞출 경우 담양가사로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외부 지향성이다.

정식(鄭湜, 1661~1731)은 정철의 현손(玄孫)으로 조선후기 담양의 가사 작가 중 유일하게 벼슬 생활을 한 사람이다. <축산별곡(竺山別曲)>은 그가 용궁현감을 역임하고 있던 1727년에 지은 것이다.³⁴⁾ 이 작품이 특이한 것은 현직에 있을 때 지었다는 점, 그런데 <관동별곡>과 달리 부임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한참 직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지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뭘까?

쇠옹이 성은 넘어
이 짜히 패부흐니
유풍을 비양하랴
교화를 도술홀가?
... (중략) ...
스미인 혼 곡도의
단침이 격절하.
나라히 허신히야
즈목을 밧즈오니
삼부틀 못 밋츠나
오고에 전일하.
왕스도 양장하고

34) <축산별곡>을 소개한 진동혁(『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은 정식이 1725년 겨울에 용궁현감이 되었으므로 1726년부터 1728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최근 조태성(『정식의 <축산별곡>과 그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10)은 작품에 “엇그제 섬현비부 / 어느 스이 삼년이고”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1728년으로 좁혔다. 그런데 정식이 용궁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1725년 겨울이므로 이로부터 삼 년째 되는 해인 1727년에 창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쇠병이 침심흐나
 옥누의 들닌 므음
 줌든 밧 니줄소냐?
 아히야 술 흐 잔 다시 치고
 툇산별곡 불너스라.³⁵⁾

늙은이가 성은을 입어 이 땅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흔히 있을 수 있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마당에도 자나 깨나 임 생각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 이 과함을 드러내는 것이 작가가 <축산별곡>을 창작한 진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아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⁶⁾

<효자가(孝子歌)>는 전우창(全禹昌, 1691~1750)이라는 실존인물의 효행을 칭송한 작자미상의 작품이다. 전우창 가문의 내력과 전우창과 그의 아내의 효행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나 이 작품의 진짜 의도는 이들의 효행을 나라에 알려 효자로 표창 받게 하는 것이다.³⁷⁾

남극엽(南極曄, 1736~1804)의 <향음주례가(鄉飲酒禮歌)>는 그의 나이 62세에 향음주례에 참여하고 나서 그 느낌을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35) 진동혁,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36) 정식은 아들이 없어 중형 줌의 계자 택하(宅河)를 양자로 삼았다. 정택하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1727년 7월 정미환국으로 파면 당했으며, 1729년에는 장오(贓汚 : 뇌물)에 관여한 죄로 종신토록 금고하라는 명을 받게 된다.

37) “내 노래 한 곡조를 / 지어내여 불러보니 // 형산(荊山)의 늙은 돌을 / 보옥(寶玉)인 줄 어이 알리? // 고곡(古谷)의 바린 난초 / 껌 사람이 전혀 없다. // 효우하신 우리 성상(聖上) / 찰방을 광임하사 // 일월(日月)같이 밝으시니 / 어디 아니 비칠소냐? // 이 노래 이 사적(事蹟)을 / 뒤라서 자시 알려 // 성상(聖上)께 등문(登聞)하야 / 효자포양(孝子褒揚) 하옵소냐?”

작품은 중간 부분에 향음주례의 법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지금이 태평성세라는 것(전반부)과 성은에 대한 예찬(후반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³⁸⁾ <충효가(忠孝歌)>는 조선이 유교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자기 조상인 남을진(南乙珍, 1331~1393), 남포(南褒, 1489~1570), 남몽구(1668~1717)의 지조와 효성을 예찬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역시 작품 말미에 “朴巡相의 狀聞이며 / 元御史의 褒啓함이 // 至今까지 百世 後의 / 子孫의 遺業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상들의 충과 효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함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류도관(柳道貫, 1741~1813)의 <경술가(庚戌歌)>는 경술년인 1790년에 창자 순조가 될 원자가 탄생한 것을 경축한 작품이다.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정철의 동명 작품을 본뜬 것이다. 이는 류도관의 모친인 연일 정씨가 정철의 후손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석하(南碩夏, 1773~1853)는 남극엽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시대만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조상들의 충효를 널리 알려 가문을 빛내고자 하였다. 그런데 남석하의 시대에 이르면 이제 이런 일들은 다 부질없는 일들로 취급된다. 남석하의 가사는 풍운지회(風雲之會)를 꿈꾸었다 좌절된 자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초당춘수곡(草堂春睡曲)>은 “靑雲의 洛水 橋을 / 二十 前の 올라가서 // 紅塵의 鳳城月을 / 三十 前の 보자던니 // 槐花나무 느즌 뜻의 / 白面書生 못 면하”고 살아가는 작가가 잠시 “九

38) 작품 말미의 성은을 노래한 대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이 날 이 잔치에 / 醉한 것도 성은이요 / 부은 것도 성은이라 // 비닉이다 비닉이다 / 우리 성언 비닉이다 // 南山까지 높고높고 / 北斗까지 오래오래 // 猗猗까지 진진하며 / 螽斯까지 선선하여 // 나는 이 聖人이요 / 닛는 이 聖人이라 // 아마도 이 잔치이 / 이 노래를 천세만세 / 히히마다 노래하여 // 비로이다 우이 성인 비로이다.”

重宮闕 𑖇라보고 / 風雲一會 𑖇쑤”지만 곧바로 “南陽處士 내 못 되니 / 三顧草廬 𑖇 잇슬고”라 깨닫고 “世上의 一萬 일이 / 다 쓸어 虛浪 𑖇다”고 하면서 “秋月春風 𑖇을 삼어 / 百年終老” 하겠노라 다짐하는 작품이다. <사친곡(思親曲)>은 부모를 영결(永訣)한 슬픔을 절절하게 읊은 작품이다. 그런데 부모와의 영결이 이렇게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바람을 들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⁹⁾ 그리하여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 죽은 뒤에라도 부모님께 이를 알리겠다고 다짐한다.⁴⁰⁾ <원유가(願遊歌)>는 노는 것에 대해 말한 작품인데, 전반부에서 말하는 놀음과 후반부에서 말하는 놀음이 다르다. 전반부(1~80구)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노는 삶에 대해 읊었는데 전체 156구(2음보 1구 기준) 중 81구부터는 “이 노림 다 𑖇 후의 / 功名을 期約 두고 // 銀鞍繡轂 盛繁華로 / 紅塵紫陌 𑖇즈간니”로 시작하여 세속적 삶에 대해 읊고 있다. <백발가(白髮歌)>는 세상사 허랑함을 모두 백발 탓으로 돌리는 작품이다.

정해정(鄭海鼎, 1850~1923)은 정철의 10대손이다. <석촌별곡(石村別曲)>과 <민농가(憫農歌)>는 1884년 6월에 있었던 복제개혁 직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촌별곡>은 현실에 대한 불평, 특히 복제개혁에 대한 반발과 상심을 드러내어 탄식한 작품이다.⁴¹⁾ <민농가>는 길으로는 농부를 표명하며 전가의 농사

39) “父母의 恩德으로 / 文學의 자라나서 // 式年科의 進士 𑖇고 / 謁聖科의 及第 𑖇야 // 綠楊 春三月의 / 御史花를 𑖇피 𑖇고 // 우리 父母 奉養키를 / 榮光으로 𑖇리던이 // 榮光은 𑖇이 업고 / 父母를 永訣 𑖇이 // 𑖇르니 이 눈물이요 / 나는 이 설움이다. // 어니 𑖇의 다시 𑖇와 / 이 눈물 𑖇고디니 // 어니 𑖇의 다시 𑖇서 / 이 설움 𑖇치고져.”

40) “窮八十 姜太公도 / 文王을 만나잇고 // 五羖皮 百里奚도 / 穆公을 섬겨신이 // 思親의 病든 몸이 / 愛君의 𑖇시 𑖇피 // 悲歎窮廬 하직 𑖇고 / 功名을 크게 𑖇겨 // 玉堂金馬 𑖇비 몰아 / 紅塵紫陌 𑖇분 후의 // 玉皇님 𑖇을 𑖇의 / 天堂을 𑖇피 𑖇즈 // 우리 父母 𑖇시 𑖇서 / 이 冤情을 알외리라.”

41) 김신중,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국학연구론총』 제12집, 태민국학연

일을 말하는 권농가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농사일을 통해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와 정치적 현실을 선명하게 비판하고 있는 노래다.⁴²⁾

Ⅲ. 장흥의 가사문학과 내부 지향성

장흥의 가사는 총 9편이다. 장흥의 가사에 대한 범주도 논자에 따라 이견이 많은데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인 김신중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⁴³⁾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장흥의 가사 9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장흥의 가사 작품

번호	작품 이름	작가	창작 연대
1	관서별곡(關西別曲)	백광홍(白光弘, 1522~1556)	1555년
2	천풍가(天風歌)	노명선(盧明善, 1647~1715)	17세기 말
3	금당별곡(金塘別曲)	위세직(魏世稷, 1655~1721)	1707년 이전
4	임계탄(壬癸歎)	미상(장흥부 관산 사람)	1733년 무렵
5	자화가(自悔歌)	위백규(魏伯珪, 1727~1798)	1787년
6	권학가(勸學歌)	위백규(魏伯珪, 1727~1798)	18세기 후반
7	초당곡(草堂曲)	이상계(李商啓, 1758~1822)	1808년 무렵
8	인일가(人日歌)	이상계(李商啓, 1758~1822)	19세기 초
9	장한가(長恨歌)	이중전(李中鉉, 1825~1893)	1876년

구원, 2013.

42) 김신중, 『정재정 <민농가>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43)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작품 현황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1.

담양의 가사가 서울의 왕족 이서가 담양으로 유배 와서 지은 <낙지가>에서 시작된 데 비해 장흥의 가사는 장흥 출신 백광홍이 평안도 병마평사로 나가서 지은 <관서별곡>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바깥 세상에 나가서 지은 <관서별곡>에서 장흥의 가사가 시작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장흥의 가사는 외부로 향하는 지향보다는 오히려 내부 지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장흥의 가사가 지닌 내부 지향성은 장흥의 가사가 대부분 조선후기에 창작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관서별곡>에서도 이미 그 단초가 마련되고 있다. 평안도 병마평사로 임명된 작가는 서둘러 평안도로 향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묘사 없이 여정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서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도 그는 “歸心이 썩르거니 / 故鄉을 思念하랴”고 하여 여정과 반대 방향인 남쪽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또한 작품 말미에서도 “思親 客淚는 / 절로 흘러 모로미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양상들이다.

그러나 장흥의 가사가 지닌 내부 지향성은 <관서별곡>을 제외한 나머지 8편이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양의 가사는 이미 조선전기에 중요한 작품들이 여러 편 창작되면서 가사 창작의 토대가 확실히 확립되었다. 이는 당시 담양이 호남 사림 정치의 중심적 무대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양적으로는 조선후기에 창작된 것이 더 많지만 이들은 대부분 조선전기에 확립된 담양의 가사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장흥의 가사는 대부분이 조선후기에 창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8세기가 가장 중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흥의 가사가 지닌 특성은 18세기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창작된 노명선(盧明善, 1647~1715)의 <천풍가(天風歌)>와 위세직(魏世稷, 1655~1721)의 <금당별곡(金塘別曲)>은

장흥의 가사가 확립되어 가는 초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사는 기행가사의 틀을 마련한 백광홍의 <관서별곡>의 전통을 이은 것이면서 <관서별곡>과는 달리 장흥 내부 지역을 유람하고 그 감회를 읊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풍가>는 제목 그대로 장흥의 대표 명산인 천풍산⁴⁴⁾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작가 노명선은 벼슬 이력이 없는 장흥 지역의 일개 선비이다. 이런 작가의 경우 대개는 세상을 탓하거나 아니면 유교 이념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명선의 경우는 “공명의 빅명하고 / 부귀에 연분 업서 // 탁낙흔 문장이 / 빅옥의 혀노흐니 // 통효 양절을 / 원대로 못할망정 // 선풍 도골이 / 세속에 마글소야?”라고 하면서 “천풍산 팔만봉은 / 각별흔 천지로다. // 갓 업슨 풍경을 / 딛기만 니로리라.”고 하여 인근 지역에 있는 명산을 탐방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우울한 심사를 달래고 있다. 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자신의 현재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데 작품 말미에 이런 그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⁴⁵⁾

<금당별곡>은 장흥 앞바다의 금당도와 만화도를 유람하고 지은 것이다. 작가가 금당도와 만화도로 향하는 것은 “분분세사 나도 슬여 / 풍월주인 되랴 햏야 // 명구 선경에 / 반세를 늙어 있”던 상태에서 확실한 초월을 위해 “황금단 지어내어 / 삼동계 못자” 함이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완전한 초월은 금당도에도, 만화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44) 지금은 천관산(天冠山)으로 불리고 있다.

45) “소박흔 이 넉 몸이 / 글자도 못혀며는 // 요수 요산흔달 / 인지를 어이 알니? // 빈발이 호빅히고 / 괴여이 쇠진흐니 // 공뎡 안증은 / 쏜의도 못 보니 // 서방 미인은 / 소식이 언제 오고 // 석실 운산의 / 옥담이 천이로다. // 초려의 도라드려 / 다시곰 바래보니 // 만이십 이 청산이 / 역문안 니런는다. // 청산을 못 니저서 / 다시 도 오자씨니 // 포의로 미양 오니 / 산수도 붓글업다.”

그는 “선화의 연분 업”음을 깨닫고 “허쥐을 다시 출라 / 오던 길노 츠자오”
게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엇지타 갑업슨 강산풍월을 / 절로
가게 흥느고”라고 탄식하게 된다.⁴⁶⁾

<천풍가>와 <금당별곡>의 작가들은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주인이 되어 신선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작품 결구에서 포의로 살면서 자연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탄식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자신들의 현실적 처지를 정확하게 자각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명선과 위세직은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기만 했을 뿐 그 자각을 바
탕으로 향촌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 이들이 실
패했던 새로운 역할 찾기는 18세기 후반 위백규에게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향촌사회에서 사족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이를 방촌의 위세
문증을 통해 실천한 인물이다. 익히 알려진 연시조 <농가(農歌)>는 이런
실천의 과정에서 창작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회가(自悔
歌)>와 <권학가(勸學歌)>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자회가>는
위백규가 회갑을 맞은 해 겨울에 “양친을 그리워하며 살아생전 모실 때 해
야 할 방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도를
모두 서술”한 것이다.⁴⁷⁾ 위백규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연보의 기록대
로 양친을 그리워하고 불효를 저지른 자신을 참회하고자 한 측면도 물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방도를 서술”

46) <금당별곡>에 대해서는 ‘박일웅, 『<금당별곡>에 그려진 선유체험 양상과 그 의미』, 최강현 엮음,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참조.

47) 위백규 지음, 채현경·이주형 옮김, 『존재집』 6, 흐름출판사, 2013, p.425.

하였다고 덧붙인 말이 오히려 창작 동기를 훨씬 잘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 한다. 양친에 대한 그리움과 불효에 대한 후회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보여줌으로써 효와 관련된 교훈을 설파하되 최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장치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하겠다. <권학가>는 『위문가첩』에는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고 가첩 『자회가』에는 위백규로 되어 있어 논란이 있는 작품이다. 인간 본연의 심성을 방실(放失)한 채 방황하지 말고 학문에 전념할 것을 권장하는 작품이다. <농가>나 <자회가>에 나타나는 체험적 서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인간성 상실에 대한 질책과 권학의 당위적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위백규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상계의 <초당곡>과 <인일가>를 수록한 『초당곡』이라는 가첩에 다른 <권학가>가 실려 있는데 이것과는 내용과 길이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위백규 작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상계(李商啓, 1758~1822)의 <초당곡(草堂曲)>은 한때 부귀를 구하려고 애쓰던 작가가 지명(知命)의 나이를 맞아 자신의 신명(身命)을 깨닫는 작품이다.

하날이 사람 낼 지
職業이 다 잊시되
昏愚한 이 人生은
제 身命 저 몰나서
妄妄된 어린 마암
富貴을 求하랴고
天寒白屋 쑥디門에
窮且益堅 큰 쓰스로
달을애 글을 익고

빗뒤애 밧슬 가니
 孔子曰 孟子曰애
 歲月이 절노 가고
 上坪田 下坪田애
 人力 虛費 썬이로다.
 어와 虛事로다
 世事 營爲 虛事로다.
 富貴는 아니 오고
 年少만 가단 말가?
 形役애 어든 거시
 白髮兩鬢 썬이로다.
 知命年이 되온 後애
 닻 身命 닻 알리라.⁴⁸⁾

18세기 후반 위백규는 궁경(躬耕)과 독서의 병행을 실천하며 방촌의 위
 씨 문중을 이끈 바 있다. 이상계 역시 “달을애 글을 익고 / 빗뒤애 밧슬
 가니”라는 구절을 통해 궁경-독서의 병행을 실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위백규와 달리 궁경-독서의 병행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上坪田 下坪田애 / 人力 虛費 썬이로다.”라거나 “形役애 어든 거시 / 白
 髮兩鬢 썬이로다.”라는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결국 그는 부친의 3년 상
 을 치르고 난 후인 51세(1808년)에 선릉지변(先壟之邊)에 초당을 짓고 세
 진(世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⁴⁹⁾

48) 이종출, 『지지재 이상계의 가사 고』, 『한국 고시가 연구』, 태학사, 1989.

49) 기우만(奇宇萬)이 찬한 <묘지명>에는 <초당곡>의 내용을 ‘세진에 얽매이지 않음’
 으로 요약하고 있다. “草堂曲, 見翁不囿於世塵.”

도로여 生覺 ㅎ니
 人間 淸福 ㄴ야 만타.
 … (중략) …
 宦海風波 危險 ㅎ디
 紅塵 紫陌 ㄴ근三公
 아모리 換此 ㅎ들
 이 溪山을 許諾 ㅎ가?
 功名 富貴 浮雲 이요
 鐘鼎 玉帛 塵埃로다.
 … (중략) …
 天地無窮 이 江山은
 ㄴ근 ㄴ이 업건만은
 碧海桑田 變 ㅎ 後에
 다 ㅎ 썩 잇실손야?
 두어라 傳子傳孫 ㅎ야 肯構肯堂 ㅎ면
 永錫其類 ㅎ리로다.

한때 꿈꾸었던 공명과 부귀는 부운이요 진애로 인식하면서 이제 그는 자연 속에서 청복을 누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을 자손들도 길이 이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일가(人日歌)>는 인일(정월 초이렛날)에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노는 자리에서 “一父母 우리 諸族 / 百代라도 至親이라. // 寸數가 멀어간들 / 情誼 좇차 멀을손야? // 呼兄呼叔 親히 ㅎ야 / 敦睦으로 崇尚 ㅎ시.”라 하여 가문의 화목을 도모하고 오륜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는 작품이다. 궁극적인 지향은 대가족적 결속에 있으며 오륜 또한 장흥에 거주하는 인천 이씨의 현실적 처지를 고려한 행위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⁵⁰⁾

50) 이에 대해서는 ‘김석희, 『위문가첩』을 통해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

이중전(李中銓, 1825~1893)의 <장한가(長恨歌)>는 “자신의 과거를 쓸쓸히 돌아보며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을 기술한 자전적 가사”⁵¹⁾이나 핵심은 자기 자손들과 자기가 가르치는 동몽(童蒙)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흥의 가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흥의 가사는 백광홍의 <관서별곡>을 제외하면 모두가 조선후기 작품이라는 점, 성격적인 측면에서 장흥 지역을 탐방한 느낌을 기술하는 기행가사와 향촌공동체의 화목과 결속을 도모하는 교훈가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장흥위씨 가문(위세직, 위백규)과 인천이씨 가문(이상계, 이중전) 등 특정 가문의 작가가 집중적인 창작을 보이고 있으며 그 유통 또한 문중 중심의 가첩 형태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장흥의 가사가 지닌 특징은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동, 특히 동족마을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사회는 17세기 중엽 이후 부계친 중심의 가부장적 친족체계가 일반화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과로 18세기에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발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장흥 방촌의 위백규 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준에 따르면 “장흥위씨의 입향 시기는 1510년대 어간으로 파악되지만 이들의 실제 문중활동은 18세기 중엽 이후에야 본격화되고, 촌락 내에서 주도권을 갖는 시기는 빨라야 1734년 이상으로는 소급할 수 없음이 자료로 확인된다.”⁵²⁾고 한다. 17세기 중엽 이후 부계친 중심의 가부장적 친족체계 일반화와 18세기 중엽 이후 문중활동의 본격화는 조선후기 장흥 지역 가사 창작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부계

의 사회사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 이회문화사, 1995. 참조.

51) 김신중, 앞의 논문, p.123.

52)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p.29.

친 중심의 가부장적 친족체계가 일반화한 상태에서 가족 분화를 통한 재생산 과정과 다시 이들을 족적 결합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동족 마을로 성장해 가는 와중에 있던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창작된 <천풍가>와 <금당별곡>은 천풍산과 금당도 기행이라는 선유(仙遊)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족마을이 형성되고 문중활동이 본격화한 시기인 18세기 중엽 이후에 창작된 <자회가>, <권학가>, <초당곡>, <인일가> 등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집단의 결속을 도모하는 교훈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담양과 장흥의 가사문학에 대한 검토를 통해 두 지역의 가사문학이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담양의 경우 질적 측면에서 조선전기 가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가사에서는 강한 외부 지향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담양가사의 외부 지향은 조선후기 가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장흥의 경우에는 백광홍의 <관서별곡>을 제외하면 모든 작품이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가사는 지역 내부의 단결과 결속을 도모하는 내부 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생겨난 것일까?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은 양반 신분으로 타고 나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양반 신분으로 타고 난다고 해서 무조건 양반으로, 특히 지배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회나 마찬가지로이지만 내가 양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양반이라고 인정해줘야 양

반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양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반이 아니었다. 양반 중에는 나라가 인정하는 양반도 있고, 한 도가 인정하는 양반도 있고, 한 군이 인정하는 양반도 있다. 일개 지역 단위에서 지배집단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향반(鄕班)이라 부르고 지역 단위를 넘어 도 단위에서 소수의 지배 종족으로 군림하게 되면 도반(道班)이라 부른다고 한다. 전라도 도반, 즉 전라도에서 가장 명문 가문으로 꼽히는 양반은 창평 지실의 연일정씨, 장성의 울산김씨, 광주 너부실의 행주기씨, 광주 평창의 장흥고씨라고 한다. 이들은 각각 정철의 문장, 김인후와 기대승의 도학, 고경명의 충절을 등에 업고 호남 최고의 명문 가문 대접을 받고 있다.⁵³⁾ 주목할 것은 전라도 4대 명문이 <면앙정가>가 포착한 원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담양의 가사가 조선전기에는 물론이고 조선후기에도 강한 외부 지향성을 보이게 된 것은 담양 일대에서는 그래야 지배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담양의 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군의식은 양반의 품격을 결정하는 네 가지 조건 중 충절과 환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장흥의 장흥위씨나 인천이씨는 동족마을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장흥 지역 향반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53) 이 세 가지에 환관(宦官)을 추가한 네 가지를 양반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도학>문장>충절>환관의 순이라고 한다. 양만정, 『순창 지방의 양반가문에 대한 고찰』, 『송준호교수 정년기념논총』, 1987.; 김성우, 「18~19세기 '지배양반' 되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고성혜, 「담양가사의 미의식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해안, 2007.
- 국윤주, 「애경당 남극엽의 시가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조선후기 향촌사족 시가의 자의식과 그 윤리적 성격-『위문가첩』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pp.275-308.
-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pp.205-230.
- 김석중,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장흥향토사연구회, 1997.
- 김석희, 『존재 위백구 문학 연구-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 이회문화사, 1995.
- 김성기, 「이서의 <낙지가> 연구」, 『고시가연구』 제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0, pp.39-59.
- 김성우, 「18~19세기 '지배양반' 퇴기의 다양한 조건들」, 『대동문화연구』 4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pp.169-195.
-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작품 현황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pp.119-140.
- _____, 「정해정 <민농가>의 배경과 성격」,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pp.63-82.
- _____, 「정해정 <석촌별곡>의 배경과 서정」, 『국학연구론총』 제12집, 태민국학연구원, 2013.
- 김윤희, 「조선후기 가사에 형상화된 평양의 지리·문학적 표상과 그 변모 양상」, 『동방학』 제30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pp.69-94.
- 김종진, 「<관서별곡>의 문화지도와 국토·국경 인식」, 『국제어문』 제50집, 국제어문학회, 2010, pp.31-61.
- 김창원, 「<관동별곡>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pp.127-148.
- _____, 「조선후기 서울인의 심상지도와 연군시가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31,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8, pp.101-125.
- _____, 「지역 고전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어문론총』 제49호, 한국문학언어학

- 회, 2008, pp.23-49.
-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조선후기 근기 지역 국문시가를 예로 하여』, 『우리어문연구』 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pp.239-263.
- 김창협 지음, 송기채 옮김, <백부 곡운 선생의 70세 장수를 축하한 서>, 『국역 농암집』 4, 민족문화추진회, 2004, pp.43-44.
-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pp.121-185.
- 『몽한영고(夢漢零稿)』.
- 박수진, 『문화지리학으로 본 문림고를 장흥의 가사문학』, 보고서, 2012.
- 박연호, 『식영정 원림의 공간 특성과 <성산별곡>』,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2005, pp.33-58.
- 박일용, 『<금당별곡>에 그려진 선유체험 양상과 그 의미』, 최강현 엮음,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pp.297-317.
- 송 순, 『면양집』, 『한국문집총간』 26, 민족문화추진회, 1988.
- 위백규 지음, 채현경 · 이주형 옮김, 『존재집』 6, 흐름출판사, 2013, p.425.
- 유정선, 『<천풍가> 연구』,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pp.283-305.
- 이상보, 『조선시대 시가의 연구』, 이회문화사, 1997.
- 이상원, 『<면양정가>의 구조와 성격』, 『국제어문』 제64집, 국제어문학회, 2015, pp.89-117.
- _____,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pp.247-278.
- _____, 『조선전기 시가문학의 동향 2』, 『새 민족문학사강좌 01』, 창비, 2009, p.224.
- 이종출, 『한국 고시가 연구』, 태학사, 1989.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잡가』,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 정승모, 『동족촌락의 형성 배경』, 『정신문화연구』 16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3, pp.41-56.
- 정익섭, 『우곡의 <장한가> 고』, 『한국언어문학』 제24집, 한국언어학회, 1986, pp.193-227.
- _____, 『이서의 <낙지가> 고찰』, 『국어국문학』 24호, 국어국문학회, 1961, pp.11-18.
- 조태성, 『정식의 <축산별곡>과 그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제26집, 한국고시가

문학회, 2010, pp.375-400.

진경환, 「누정가사의 공간과 풍경」, 『우리어문연구』 제38집, 우리어문학회, 2010, pp.111-136.

진동혁,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pp.103-126.

하성래, 「정방의 <효자가> 고」, 『한국언어문학』 제10집, 한국언어문학회, 1973, pp.187-205.

Abstract

Literature, History, and Geography

- Comparison of Gasa between Damyang and Jangheung -

Lee, Sang-Won

This paper compared and reviewed the Gasa between Damyang and Jangheung to discuss the issues of historical locality or local historicity from a perspective of embracing both historicity and locality.

In Damyang, the Gasa works created in the former half of Joseon were dominant in terms of quality and exhibited a strong external orientation, which was transmitted in the Gasa works created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to some degree. In Jangheung, all of Gasa works were concentrated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except for *Gwanseobyeolgok* by Baek Gwang-hong and exhibited a strong internal orientation of promoting solidarity and unity within the community.

The Gasa works of Damyang got to have a strong external orientation both in the former and latter half of Joseon because it was needed to assume the position of the ruling noblemen in the area. It is needed to note that yearning for the king commonly found in the Gasa works of Damyang guaranteed the fulfillment of both loyalty and government position, two of the four conditions to determine the dignity of noblemen. In Jangheung, on the other hand, the Wui family of Jangheung and the Lee family of Incheon firmly consolidated their status of local elites in the area by promoting the internal unity of their clan villages.

Key Word : Damyang, Gasa, geography, history, Jangheung, literature.

이상원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62-230-6506 / 010-3664-2855

전자우편 : sanje2@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